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표 발의 법안 대부분 통과 됐다

소상공인 지원·화상 디자인 보호
농지법·농협조합법 개정안 등
3월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여순 특별법은 4월 처리 될 듯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부위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브랜드 분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난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도 빛을 보게됐다.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의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업법이 통과되면서, 다음 중앙회장 선출부터 전국 조합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돼 농업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실현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농업중앙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제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여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합의 선거 참여권을 강화했다. 또 서 의원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두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 조립등을 시찰하면서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발사체 조립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호 개발 사실상 완료...비행모델 조립과 10월 발사만 남았다

1단 연소시험 성공...개발 일정 탄력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1단 추진 기관 종합연소 시험에 성공하면서 개발 일정에도 탄력이 붙었다.

누리호는 25일 연소시험에 성공하면서 '핵심 기술'인 1단부 클러스터링 개발-검증을 끝마쳤다. 이는 로켓을 쏘아올리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엔진 4기를 동시에 연소하는 기술이다. 로켓개발 기술이 선도 수준에 올라야 개발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링 개발 성공은 누리호 개발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음 목표로는 비행모델 최종 조립과 발사만 남았다. 누리호는 오는 10월까지 비행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시설에서는 10월 발사될 누리호 비행모델을 조립하고 있다. 조립은

7월 말까지 진행되며, 9월에는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 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고 배출하는 발사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이는 총 3단계로 구성된 개발 사업 중 마지막 단계다. 1단계 사업(2010~2015년)에서는 7t급 액체 엔진 개발·연소시험을 완료했으며, 2단계 사업(2015~2019년)에서는 75t급 액체엔진 개발·인증, 시험발사체 발사를 마쳤다. 3단계 개발 과정은 오는 2022년 10월까지 진행되며, 2회 발사까지 성공하는 게 목표다. 1차 발사는 오는 10월로, 1.5t급 더미(시험) 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할 예정이다. 2차 발사는 오는 2022년 5월로 예정돼 있으며, 1.3t급 더미 위성과 0.2t급 성능검증위성을 함께 싣고 우주로 쏘아보낸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km 저궤도에

쏘아올리는 로켓이다. 총 길이 47.2m, 직경 3.5m이며 중량은 200t이다. 총 3단부로 구성돼 있다. 누리호 개발에는 나로호(KSLV-I) 예산(5000억원)보다 4배 많은 1조 9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발사체 기술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고난도 기술로서 기술적 파급효과도 크다. 수십만 개 부품으로 구성된 만큼 항공·전자·통신·소재 등 연관산업 범위도 넓어 관련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영향을 크다.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개 기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소시험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는 누리호 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을 구축하고,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을 개발할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차기 대권 적합도, 윤석열 23%·이재명 22% '양강 체제'

4개기관 여론조사...이낙연 10%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축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1010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을 꼽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23%로 가장 많았다. 작년 7월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가 시작된 이래 윤 전 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22%로 오자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서 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지지율은 10%였다.

윤 전 총장은 1주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 수치에 변함은 없었지만, 이 전 지사가 3%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바뀌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꼽는 응답이 전체의 56%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46%, 이 위원장이 27%였다.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1%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57%로 최고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27%, 정의당 6%, 국민의당 6%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공공형 특수대학' 모델로 세계적 공대 육성 할 것"

한전공대 유치 주역 김영록 전남 지사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올해 도민들에게 약속한 '한전공대 2022년 개교'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이하 한전공대특별법)의 3월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한 김 지사는 막판 '부영 특혜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설득하고 다짐하며 전남 발전의 한 축 기틀을 세웠다.

김 지사는 2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앞으로 과제가 더 산적해 있다"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또 한전공대가 세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전공대를 '공공형 특수대학'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세계적인 공대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향후 10년간 2000억원을,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지원하는 만큼 일반 사립대가 아닌 '공공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부영 특혜 논란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초강력레이저센터' 유치, 전남과학고 및 외국어고 이전 및 유치 등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혜택이 전남도 전체에 미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이번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자신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독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부



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도 여야를 넘나들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법 통과를 위해 매진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10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의 초중고 학생들도 공학도의 꿈, 과학자의 꿈, 벤처창업자의 꿈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남에서도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와 같은 창의적인 공학도이면서 혁신적인 사업가가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